

# 축사

## -제7회 기술사의 날-



경애하는 이정만 한국기술사회장님, 정운 과학기술부 차관님, 기술사회 회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최고 기술'의 표상이며, 그 권위를 자랑하는 기술사회가 주관하는 '기술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해서 제7회 기술사의 날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뜻 깊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으로 정부포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마음속 깊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이 나라 산업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3만 3천여 기술사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기술사 여러분, 그리고 과학기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을 선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과학기술의 급속한 변혁은 인류의 문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바 있는 신경제성장 이론의 주창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의 보유 여하에 따라 한 사회, 한 나라의 미래가 좌우될 뿐만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의 지역 불균형 발전이 심화 될 것이라는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터드러커는 지식기반사회의 원동력은 지식이며 이를 생산하는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자들(knowledge technologist)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는 사회라고 예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흐름 속에서 기술사 여러분의 역할이야 말로 국가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핵심 축을 이루는 분들입니다. 이공계 전 분야인 89개 종목, 3만 3천여 명의 기술사는 산업현장의 기술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천만 기술자격 취득자들이 꿈꾸는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정만 한국기술사회장을 차기 회장단에 부회장으로 모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아직도 기술사회 업무관련 법이 과기부와 노동부 등 두 개의 상이한 부처에 분산 수용되고 있어 기술사들의 역량강화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새 정부에서는 기술사제도를 더욱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현재 기술사회가 안고 있는 불편한 점들을 해소 하기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3만 3천여 기술사들의 숙원이자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청으로서 과총도 기술사 여러분과 함께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기술사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책무를 다하셔서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 나라 기술자격자들의 상징인 한국기술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21세기 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기술사 여러분의 국가발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영예의 수상을 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3만여 기술사 여러분의 번영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2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채영복